

“90세 넘어서도 완주하는 할머니 될래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0만 명 돌파
아마추어 기량 향상·수영보급 노력
“수영하면 떠오르는 사람되고 싶어요”



수영 콘텐츠로 유튜브 스타가 된 이현진 대표는 수영 클럽팀 '러블리 스위머즈'를 운영하며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과 수영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출처: 이현진 인스타그램

수영 마니아들 사이에서 아이들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러블리 스위머'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로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수영 클럽팀 '러블리 스위머즈'의 이현진 대표이다.

이현진 대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 때 수영 강습을 시작하면서다. “스스로 강습을 잘한다고 느꼈고, 수영 관련해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박사도 아닌 네가 어떻게 책을 쓰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자극을 받아 유명해져야겠다고 다짐했죠.”

이 대표는 유명해지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을 선택했다. 그러다가 찾게 된 것

“조”라며 미소 지었다.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러블리 스위머'는 지난해 12월 기준 구독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그만의 솔직한 티칭과 영법이 구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유명해지는 데 성공한 것이다. 덕분에 목표였던 수영 관련 책도 출판했다. “4월에 책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간하게 되면 알려드릴 게요”라며 웃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을 딴 '러블리 스위머즈'라는 이름의 클럽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진 대표는 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 클럽팀을 만들었다고 했다. “대학교 1학년 때 금천구청에서 강사로 일하던 시절, 맹목적으로 저를 좋아해주셨던 회원님이 있었어요. 그분 성함이 김현주 씨였는데,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깨닫던 분이였죠.”

대외활동을 잘 안 했던 이 대표는 김씨의 부탁에 '스윙 닥터'라는 수영 동호회에 강습을 나가고 운동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수영을 끈질기 배우고 따라 하

는 김씨를 보면서 아마추어들도 대회에 나갈 수 있게끔 클럽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수영 강사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유튜버로서, 수영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세 가지 있다는 이현진 대표는 “우선 수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현진’ 하면 수영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라며 웃었다. 두 번째로는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완주하는 할머니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나중에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됐을 때도 수영하고 싶어요”라고 했다.

이 대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역시 수영이었다. “나중에 손녀, 손자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싶다”며 뺏속까지 수영인의 DNA가 흐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앞으로 구독자, 클럽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아마추어 수영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김원비 명예기자 (순천향대 스포츠과학 전공) dnjsq08277@naver.com

UCL 16강 앞둔 유벤투스 ‘철벽수비’ 키엘리니 복귀



키엘리니

27일(한국 시간) 리옹과의 UEFA 챔피언스 리그(UCL) 16강 1차전을 앞둔 유벤투스가 수비에 무게감을 더했다. 17일 브레시아와의 경기에서 지오르지오 키엘리니가 부상 복귀전을 치르며 지난해 8월 24일 파르마와의 경기 이후 약 6개월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키엘리니는 십자인대 파열로 그동안 출전하지 못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복귀까지 최소 6개월, 혹은 그 이상 장기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최소 진단대로 부상에서 복귀했다. 유벤투스가 2골 차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을 때 경기 종료 12분을 남기고 키엘리니가 출전했다. 주장 완장을 단 키엘리니는 무실점을 유지하며 부상 이후의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키엘리니가 장기 부상으로 전력 이탈하자 더 리히트가 그의 자리를 대체했다. 하지만 더 리히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터키 출신 수비수인 데미탈이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데미탈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되고 말았다. 더 리히트가 조금씩 적응하며 폼을 끌어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다소 아쉬운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

유벤투스는 라치오와 인테르에게 선두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직한 키엘리니가 팀에 돌아왔다. 심각한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경기장을 비운 키엘리니가 예전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과연 유벤투스 수비진에 키엘리니가 안정감을 더할 수 있을까.

황준석 명예기자(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 전공) dillan97@naver.com

완생 꿈꾸는 ‘아기독수리 삼형제’ 변우혁·유장혁·노시환

(한화)

11년 만의 가을야구를 경험했던 감동도 잠시. 1년 만에 한화는 다시 추락했다. 가장 믿을 구석이었던 불펜은 송은범과 이태양이 흔들리면서 활거위였고, 선발전 문제는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

선수들 간의 세대교체도 아쉬웠다. 베테랑들은 에이징 커브의 시련을 피해 가지 못했고, 신인들의 성장은 더뎠다. 2018 시즌 박상원과 정은원의 등장으로 신예 선수들의 재미를 봤던 한용덕 감독은 지난 시즌에도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올해 역시 신진급 선수들의 중용이 예상되는 만큼 한 시즌을 소화한 지난 시즌 신인들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시즌 신인 중 1군에 얼굴을 종종 비쳤던 타자는 이른바 ‘변노유’ 라인(변우혁, 노시환, 유장혁)이었다. 그중 가장 많은 기회를 얻은 선수는 노시환. 고교 최대 유망주답게 빠른 시점에서 데뷔 첫 홈런을 신고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후 컨택과 선구안에 큰 약점을 노출하며 고전했다.



2019 시즌에서 가능성을 보인 한화의 ‘변노유’ 아기독수리들. 왼쪽부터 변우혁, 유장혁, 노시환.

사진제공: 1 한화 이글스

타율도 0.186로 낮았고, 특히 11개의 볼넷을 얻는 동안 72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1군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즌 후 진행된 교육리그에서 1경기 4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파워만큼은 확실히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줬다.

2019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된 변우혁은 월드 파워 쇼케이스 본선에 진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김태균을 이을 후계자라는 평

가를 받았다. 표본은 많지 않았지만 신인인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선구안을 보여줬다.

고교시절 3루수로 이름을 알렸던 유장혁은 프로에 입단하면서 외야수로 전향했다. 타구 판단에 약점을 보이면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는 못했다. 새로 영입한 정진호, 김민호와 함께 외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각 구단별로 확실한 주전 자리를 차지한 선수는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제2 김태균’ 변우혁·외야 전향 유장혁
고교 최대 유망주 출신 노시환도 기대

선수들이 많다. 하지만 한화의 경우 최재훈 정도를 제외하면 이 연령대 선수들이 부족하다. 여전히 주축인 30대 후반의 베테랑들이 은퇴할 경우 당장 20대 초반의 신예 선수들이 주전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다. 높은 기대를 받았던 것에 비해 많은 시련을 겪었던 아기 독수리들이 첫 시즌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까. 이희재 명예기자 (충남대 불어불문 전공) gmlwo815@naver.com

당신이 더 행복 할 수 있도록

트루맨 남성의원

강남 부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017-중-100311호

ED1000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발기부전 치료

고속 방전동력(electrohydraulic)등을 이용하여 충격파를 발생시켜 체내에 기계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혈류장애로 인한 발기부전 치료 목적으로 사용 발기기능을 향상을 지향하며, 치료효과에 따라 발기부전 개선

적용 대상

발기부전 환자는 ED1000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발기부전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강도 체외충격파 이용한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치료 당일 시술 가능!!

2015년 신의료기술 등재!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이란? 비대해진 전립선을 묶어주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좁아진 전립선 요도부위를 넓혀주는 시술 전립선을 묶을 수 있도록 개발된 ①이식형 결찰사를 별도로 ②고안된 장비를 이용하여 전립선을 고정시켜 요도를 넓혀 준다.

특징

1. 짧은 시술 시간
2. 빠른 효과 지향
3. 시술 후 퇴원 지향
4. 시술 후 일상생활 가능.
5. 1회 시술로 반영구적인 효과 지향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50세 이상이고 전립선용적 100cc 미만, IPSS 점수가 8점 이상인 외측엽(lateral lobe)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부작용으로 혈뇨, 통증, 급박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트루맨남성의원 부산 (부산역 앞) 051-463-8576

트루맨남성의원 강남 (강남역 1번 출구앞) 02-557-5518